

2022년도 제1차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회 의 록

(2022. 12. 9.)

용인특례시의회

2022년도 제1차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용인특례시의회

일시 : 2022년 12월 9일(금) 16시

장소 : 용인특례시의회 대회의실

의사일정

1. 참석위원 소개
2. 위원장·부위원장 선출
3. 안건 심의
4. 폐 회

심의안건

1. 공무국외출장 심사

(16시00분 개석)

○간사 최창훈 자리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용인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간사를 맡은 의정팀장 최창훈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당연직 위원이신 용인특례시의회 남홍숙 의회운영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용인시 안전관리 민간협력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유성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찬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이신 이찬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단국대학교 교수이신 김선명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도민일보 국장이신 김태현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용인시 농업인단체 협의회 회장이신 안재만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참고로 명지대 교수님이신 이정선 위원님과 저희 용인특례시 김운봉 부의장님께서
는 개인 일정으로 불참하셨습니다.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금일 회의 개요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순서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을 하시고 용인시의회 의원 공 무 국

의출장 1건을 심사하시겠습니까.

현재 지난 12월 6일 심사위원의 위촉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연임 규정에 의거하여 여섯 분의 심사위원을 위촉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심사위원회는 당연직 시의원 두 분, 위촉직 민간위원 여섯 분 총 여덟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선출을 위해 남홍숙 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겠습니까.

○임시위원장 남홍숙 안녕하세요. 남홍숙입니다.

2022년도 제1차 용인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신임위원장이 선출되면 이후 안전에 대해서는 신임위원장이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당부드립니다.

간사는 성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최창훈 성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용인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 8명 중 6명이 참석하여 성원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임시위원장 남홍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공무국외출장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첫 번째 안전인 심사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호선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는 제안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최창훈 첫 번째 안전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용인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제5조제2항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라는 규정에 따라 심사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출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시위원장 남홍숙 간사는 수고하셨습니다.

관련 규칙에 따라 시의원은 위원장이 될 수 없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유념하시어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장이 2인 이상이 추천되었을 경우 거수 방식의 투표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현 위원 김명선 교수님 추천합니다.

○임시위원장 남홍숙 위원님들께서 추천하신대로 김선명 위원님을 심사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선명 위원님이 심사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임위원장님은 앞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선명 안녕하세요. 단국대학교 김선명입니다.

신임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열심히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선출하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홍숙 위원 이찬 위원님이요.

(「예,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선명 부위원장님 선출에 이의가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안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최창훈 자료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공무국의 출장은 용인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제2조 용인시의회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 출장을 하는 경우로서 김운봉 부의장을 포함하여 8명의 의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출장의 목적은 국외 도시 모범사례의 벤치마킹 및 국제교류 활성화이며, 출장 국가는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가 되겠습니다.

출장 내용으로는 말레이시아 암팡시청을 방문하여 국제교류 방안을 모색하고 세종특별시의 물모델인 행정도시인 푸트르자야와 싱가포르 도시재개발청 등을 방문 견학하여 도시계획방식의 장점 및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용인시의 발전적인 도시재생 연구를 위한 사향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명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번 안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태현 위원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내년 세부계획을 말씀해주시고, 심의위원회가 무슨 일을 해야 되지 포괄적으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간사 최창훈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 공무국의 예산은 확정을 운영위에서 해 주셔야 되겠지만 내년도에 1인 360만 원 정도가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해외 자매도시 초청이라든가 아니면 평소 관심있는 분야, 특히 여러 가지 해당되는 상황에 대해서 국외여행 심사를 통해서 출장을 가지게 됩니다.

다만, 1월, 2월, 3월이라는 12월까지의 구체적인 세부일정은 현재로서는 수시로 열리기 때문에 나와 있지는 않은 상태고요. 최초로 1월에 가지게 되는 계획이 저희

국외심사위원회에, 공무심사위원회에 접수가 돼서 오늘 회의를 개최하게 됐습니다. 이번 건 같은 경우는 총 여덟 분의 의원님이 출장을 가지게 되는데요, 공감대를 평소 관심 분야가 같으신 분들끼리 여러 가지 의견을 모아서 문화복지 분야라든, 도시 분야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평소에 의견을 조율하신 후에 장소를 선정하신 다음에 ‘어떤 장소에 가서 벤치마킹을 했을 때 효과가 있겠다’. 라는 것을 결정하셔서 계획을 수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출장일정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쿠알라룸푸르, 싱가포르에 가서서 문화시설 벤치마킹을 주로 하시고 특히 싱가포르 도시재개발청은 약 50년 정도를 내다보면서 도시계획을 세우는 치밀한 기관으로 명성이 있습니다. 이곳에 가서서 건축, 도시, 환경 등 다양한 분야를 벤치마킹하고 복귀하는 그런 일정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체일정 같은 경우는 수시로 이런 부분이 공감대가 형성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계기가 발생했을 때 저희가 30일 전에 심의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 수시로 발생하는 사항이 있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역할은 가시는 장소 부분이 얼마나 도움이 돼서 의원님들께서 돌아오셔서 용인 시민을 위해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지 부분을 판단해 주면 되고요. 그다음에 출장경비 부분은 저희가 세밀하게 확인을 했습니다. 이것은 법 규정에 있는 국외여비 규정에 따라서 국가별로 나라 물가를 고려해서 ‘가’등급부터 ‘라’등급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세밀하게 확인을 해서 책정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혹시 그 부분도 보시면서 잘못됐다는 생각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추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명 혹시 다른 위원님의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가요?

○안재만 위원 업무 내용을 보면 대부분이 도시건축, 도시환경, 도시재개발청 방문 이런데 저는 농업직의 위원으로 참석을 해서 그래도 용인이 도농복합도시인데 농업에 대한 벤치마킹에 대한 것은 왜 안 했나? 농업선진국인 그런 데도 있는데. 그런 곳도 같이 한번 가서서 의원들이 벤치마킹을 해오셔서 용인시 농업발전에도 보탬이 됐으면 하는.

이번에 이렇게 계획을 잡으셨는데 다음에는 그런 부분까지 같이 생각해서 계획을 잡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남홍숙 위원

지금 이 의원님들 모이신 것은 도시재생이나 기반시설 쪽으로 관심 있어서 하신 거고, 안 회장님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참고해서 후반기에도 의원들이 정말 말씀하신게 맞거든요. 도농복합에 대표적인 게 용인시니까 네덜란드나 이런 식으로 우리도 그쪽에 관심을 갖고 가자라고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 충분히 선정하겠습니다,

○남홍숙 위원 여기는 농업이 아니라 도시재생 쪽 개발, 기반시설 이런 것 보러 가는 것 같아요. 이해가 가지지요?

○위원장 김선명 귀한 의견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김유성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김유성 위원 없습니다.

암팡시청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도 여기 암팡에 자주 방문을 했었거든요. 신흥재개발도시, 신개발도시예요.

상당히 여기 용인시의 도시개발과도 교류나 여러 가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선명 혹시 부위원장님은 있으신가요?

○부위원장 이찬 재개발이라는 게 ‘노후화된 지역을 새것으로 바꾼다’. 쉽게 얘기하면 이런 취지잖아요. 싱가포르 도시개발청이야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알겠는데 용인시에서 재개발에 필요한 어떤 지역을 염두에 두고 이곳을 방문해서 무엇을 벤치마킹하시려는 것인지 조금만 구체적으로 설명을 들었으면 하거든요.

○간사 최창훈 지역조합에서 하는 역삼지구가 계속 진행이 안 된 부분이 있고요. 용인 자체가 전체적으로 확대되다 보니까 재생한다는 의미보다는 새롭게 개발하는 부분이 많기는 합니다.

다만, 싱가포르 도시재생청은 재개발사업뿐만이 아니라 새로운 땅에 새롭게 건설하는 부분도 장기적인 시간을 가지고 치밀하게 하는 그런 부분으로 정평이 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용인지역에 재개발한다면 역삼지구, 역북지구가 될 것 같고요. 아마 그 외에도 새롭게 하는 개발지구 같은 부분에도 조금 배울 것이 많다고 생각해서 선정을 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홍숙 위원 제가 보충 설명드려도 될까요?

용인이 대표적인 도농복합이고 구도심이 있고 신도심이 있고 그렇잖아요. 처인같은 경우는 다시 도시재생사업을 해야 될 아파트, 그때는 아파트였어요. 지금은 빌라수준이지만. 그런 사업해야 될 것들이 많기 때문에 우선은 가서 벤치마킹하고 아마 이분들이 갔다운 결과를 갖고 방향을 잡을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유성 위원 현재 구도심 재생하는 지역이 신갈오거리하고 처인 어디지요? 두 군데지요, 공식 지정된 데가 용인시가?

○남홍숙 위원 그렇지요.

○김유성 위원 지금 시작하는 단계니까 많은 도움이 되겠지요. 보고하면.

○남홍숙 위원 수지도 시작할 거고요.

○김유성 위원 수지도 지정됐어요?

○남홍숙 위원 지정은 안 됐고, 이제 시작…… 거기도 벌써 20년이 지나서.

○김유성 위원 그렇지요. 1지구나 풍덕천 사거리는 오래됐고.

○이찬 위원 용어의 차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보통 우리나라에서의 재개발은 노후화된 빌라나 단독주택을 부수고 아파트를 짓는 거지요.

지금 여기에 들어와 있는 것은 문화시설이나 필요한 기반시설들인데요. 재개발로서는 용인시의 도시계획이나 정책에 접목될 수 있는지 그게 궁금하기는 했거든요, 보자마자. 아파트는 짓는 거니까요, 재개발이라고 하면.

○간사 최창훈 어떤 특정한 사항을 치밀하게 봐서 결정한 것은 아니고요. 전반적인 전체적인 것을 보러 가시는 사항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찬 처인구 쪽이 아무래도 농사를 짓고 있는 곳이 처인구이고 비중이 높으니까 함부로 개발할 수는 없을 것 같기는 한데 만약에 한다면 처인구 쪽에 문화시설이나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입지시키려고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 건가요, 그러면? 그런 계획이신 건가요, 대략적으로?

○간사 최창훈 지금 현재 처인구 지역에 공공시설 재배치용역이라는 것도 이루어지고 있고요. 특정하게 그것 때문에 거기 가서 그걸 배워온다는 것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반적인, 어떤 과정을 겪었을 때 저희 시에서도 그런 것을 도입해서 배워서 접목시키는 게 좋을 것 같고, 접목시켜야 될 게 특정해서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가서 전반적으로 내용을 듣고 배우러 간다는 차원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재만 위원 여러 가지 공부하러 가신다는 거예요.

○김태현 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것을 묻는데 이렇게 장소가 정해졌잖아요. 이 장소는 그러면 가시는 분들끼리 회의를 통해서 정하시는 거예요?

○간사 최창훈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감대를 형성하신 분들이 가서 도시계획 부분, 문화 부분 그런 부분에 어울려서 시간에 최적화된 거리 배치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하셔서 결정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태현 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나가시는 분들은 공감대 형성이 돼서 나가시는 분들이신 거지요?

○간사 최창훈 예, 그렇습니다.

○김태현 위원 그러면 이게 또 계획에 따라서 틀려질 수 있는 거지요? 의원들이 따로 있으니까 거기서 갈 수도 있는 거고, 1년 동안 쓰일 수 있는 비용이 360만 원으로 한정되어 있고 이게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거지요, 내년 것은?

○간사 최창훈 그것은 저희가 예산심의가 현재 진행 중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개인별로 어떤 분은 여러 번 나가고 어떤 분은 안 나가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1인당 어느 정도의 국외 나갈 수 있는 여비는 그 정도로 적정하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김태현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내년에 나가시면 1년 동안은 이게 마지막이 되시는 거예요?

○남홍숙 위원 네.

○김태현 위원 그게 궁금했어요.

비용이 그렇게 이번에는 많이 책정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간사 최창훈 아무래도 국가라든가 항공료 부분이 조금 거리가 멀고 물가가 많은 지역 같은 경우는 높게 책정이 되고요. 가까운 지역은 좀 적게 책정이 됩니다.

○김태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명 그러면 궁금하신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가요?

○김태현 위원 그러면 갔다 오시면 보고서 작성을 하시잖아요?

○김태현 위원 그러면 보고서작성도 검토하시……

○간사 최창훈 예. 보고서 작성해서 그 일정기간 내에 보고를 드리게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태현 위원 저희한테 보고하나요?

○간사 최창훈 예.

○김태현 위원 알겠습니다.

○간사 최창훈 그래서 그 시기를 저희가 조율을 해서 완료가 되면 보고하는 일정 잡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명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공무국외출장심사 원안대로 의결하고, 용인시의회 의장에게 통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의가 없으므로 용인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사안에 대한 결과를 심사의결서에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무국외출장 심의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6시22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선명, 김태현, 안재만, 남홍숙, 김유성, 이찬(무순임)